



유럽 은행 핵심자기자본비율 상향을 둘러싼 불협화음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연합은 그리스 디폴트 문제와 유럽의 은행권 위기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음.

- 텍시아 은행을 비롯하여 유럽 주요 대형 은행들의 2011년 실적이 주변부 국가의 국채보유로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은행권 위기가 점차 심화됨.
 - 오스트리아 은행인 Erste Group은 주변부 국가의 국채 보유로 2011년 10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함.
 -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실적 공개 때 더 많은 은행들이 적자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함.
- 10월 12일 유럽은행감독청(EBA) 집행이사회는 유럽권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(core tier one ratio)을 최소 9%로 상향 조정하고, 6~9개월의 기한 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규제안을 승인함.
 - EBA는 유럽 은행들에게 국채 보유의 최신(6월 말 기준) 내역을 10월 13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며, 10월 셋째 주까지 은행권 자본 부족분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.

■ EBA가 상향 조정한 핵심자기자본비율(core tier one ratio) 9%는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예상(6~7%)을 상회하는 수준임.

- 전문가들은 EBA가 최근 비공개로 실시한 추가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¹⁾ 결과를 근거로 핵심자기자본비율이 6~7%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음.
 - 로이터 통신은 EBA가 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7%로 설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으며, 그 결과 대상 은행 중 절반 수준인 48개 은행이 불합격했다고 보도함.

1) EBA는 2011년 7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대상 은행 91개 가운데 8개만이 불합격했다고 발표해 심사의 엄격성과 투명성에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. 당시 합격 은행 중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처음으로 규제금융을 받게 된 프랑스-벨기에 합작은행인 텍시아도 포함되어 있음.

- 또한 불합격 은행의 자본확충에 99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분석함.
- 그 이후 EBA는 경기 침체를 가정해 핵심자기자본비율이 적어도 7%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중론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을 미뤄옴.
- 모건스탠리는 핵심자기자본비율이 9%일 경우 은행권의 자본 확충 규모는 2,7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
■ 그러나 일부 유럽 대형 은행들이 핵심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자본 확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규제 강화 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프랑스 대형 은행들은 자본확충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므로 동 강화 안을 반대한다고 밝힘.
 - 은행들은 현재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은행에 큰 부담이므로 자산 매각과 대출 축소를 통해 자본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됨.
 - 유럽 은행들의 주가는 현재 장부가치의 60%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.
 - 또한, 신주에 대한 투자수요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.
- 현재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너럴 등 프랑스 은행들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, 이탈리아, 스페인, 독일 은행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.
- EBA 내의 일부 국가들도 은행의 대출감소는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 - 유럽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80%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,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의존도(30%)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.
 - 독일 등은 핵심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자본확충에 반대하고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 10/11; Financial Times 10/11, 10/12)